

## 德成女子大學의 教養教育

鄭 光  
(德成女大 國語國文學科)

### 1. 緒 言

요즈음 각 大學에서는 새로운 教育課程의 開發과 더불어 教養教育에 대한 再認識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1970년 대를 고비로 급격하게 量的 膨脹을 거듭해 온 대학의 社會的 位置를 상당히 變化시켰다. 大學 教育의 目標도 비록 成文化된 것은 없지만 大學 社會에서 암암리에 수정됨으로써 그러한 교육 目標의 구체적 실현인 교육 과정도 새롭게 照明 하려는 노력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 해방 후 아무런 意識 없이 西歐의 教育制度和 方法을 수용해 온 우리나라 대학의 매너는 批判과 自省에서 그 동기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의 教育課程에 대한 改革과 그에 따른 教養教育의 再認識은 위에 언급된 두 가지 이유 이외에도 대학 밖에서 들려오는 社會的 要求에 의한 것도 있을 것이다. 周知하는 바, 197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高度成長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고도의 產業社會로 전환시켰으며 일부에서는 이미 情報化時代의 새 물결을 맞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 이상 舊態依然한 교과 과정을 용납하지 않고 본격적인 改革을 바라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大學社會란 본래 다른 사회보다 保守의인 경향이 있지만, 다른 모든 분야가 변해가는데

大學만이 그러한 분위기에서 超然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日帝下에 설립된 京城帝國大學이나 다른 몇몇 사립 대학 대부분이 당시 日本의 大學制度를 모방하여 教育理念和 教科課程을 마련했었다. 물론 당시 日本의 대학 제도란 獨逸이나 다른 歐羅巴의 대학 제도를 일부 變形시킨 것이었지만 이러한 영향을 받았던 우리나라 初期의 대학은 해방이 되자 美國의 大學制度를 도입하면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 新設된 대학들도 기존의 대학 제도와 대학교육에 대한 傳統的 認識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며 現代社會가 요구하는 대학, 特性 있는 대학의 설립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 대학교육의 理念이나 새로운 教科課程의 개발과 검토도 독자적인 것이 별로 없었다. 별다른 特徵 없는 대학들이 무수하게 認可되었으며 그렇게 인가된 대학은 그저 건물을 짓고 학생을 모집하고 교수를 초빙했을 뿐이지 새로운 대학교육의 이념이나 새로운 教育方法으로 새롭게 大學을 설립하고자 했던 경우는 매우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대학이 거의 同一한 교육 목표 아래 똑같은 교육 과정을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대학을 千篇一律化시키는데 중요한 몫을 한 것은 대학을 인가하고 그 운영을 감독하는 文敎部의 교육 정책이었으며 이

런 현상은 오늘날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현대 사회와 같이 다양한 知識, 복잡한 情報, 세분화된 學問領域을 감안할 때 대학은 初·中·高等學校처럼 일률적인 教育體制를 갖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각 대학은 나름대로의 설립 목적이나 주어진 여건에 의하여 서로 다른 教育理念이나 教育課程을 특성 있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학생들은 자신의 適性과 能力에 알맞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유사한 교육 목표, 동일한 교과 과정이나 교육 방법을 가진 대학을 等級別로 분류해서 成績에 의하여 학생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解放과 6·25 動亂의 혼란을 겪으면서 대학은 量的인 增加를 보였으나 教育理念이나 教育課程, 教育方法 등 質的 向上을 위한 노력은 1970년대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德成女子大學도 1970년대부터 당시 學長이었던 朴元國 博士의 주도 아래 特性 있는 教育理念과 教育課程의 마련을 위하여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였다. 소규모의 女子大學에 알맞은 교육 과정, 특히 교양 과정에 역점을 두어 새로운 教養科目의 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때에 들인 정성과 노력은 대단한 것이어서 教育學과 人文社會學을 전공한 많은 碩學들이 이 새로운 教養教科課程의 개발에 참여하거나 諮問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때에 마련된 교양 교과 과정은 入試爲主인 고등학교 교육에 희생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여성의 情緒醇化和 바람직한 現代女性이 갖추어야 할 基礎的 教養을 습득시킨다는 목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었다. 이것은 德成女子大學이 갖고 있던 특징적인 教育目標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과목들이 주로 藝術과 文化 일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인간 사회와 기존의 思想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현대 사회의 올바른 價値觀이나 倫理觀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었으며 道具科目인 外國語와 自然科學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基礎理論科目을 교양 과정에

서 제외시킨 것이다. 당시 대학의 교양 과목은 대체로 基礎科目(概論類)과 道具科目(國語, 數學, 英語를 비롯한 外國語 등)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 통례였으며 情緒涵養이나 人格陶冶를 위한 과목들은 매우 등한시되었다. 더우기 1970년대 중반에 실험적으로 실시되었던 教養課程部의 등장은 교양 과목들이 專攻 選擇의 豫備課程의 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각 학문 영역의 基礎科目이 중요한 교양 과목이었던 시대에 이를 교양 과정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革新的인 일이었다.

1970년부터 집중적으로 검토된 德成女大의 새로운 教養 프로그램은 1976년에 試案이 작성되었고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때에 또 하나의 파격적인 교육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것은 全學科 全學年 학생들에게 실시되는 교양 프로그램의 대부분 과목을 15~20명의 소집단 토의식 강의로 운용하는 것이었다. 즉, 매주 어떤 과목의 어떤 주제에 대한 집단 강의가 있고 이 主題를 가지고 소집단 강의실에서 15~20명의 학생이 교수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강의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 강의 방법은 많은 수의 강의실과 교·강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며 당시 갑작스러운 학생 증원으로 각 대학이 수백 명씩 집단 강의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과감하고 혁신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실시된 교양 프로그램의 教育效果를 측정할 수 있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런 教科課程과 강의 방법으로 교육받은 졸업생들이 직장이나 대학원 기타 여러 곳에서 타대학의 졸업생들과 대학 시절의 교양교육에 대해서 비교될 때 월등하게 그 방면에 뛰어난 지식과 발표력을 갖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sup>1)</sup> 또 1980년대초에 보여 준 몇몇 대학의 교양 과정 개편의 방향이 부분적으로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德成女大 教養 프로그램과 같은 취지를 반영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1) 教養教育課程의 개발을 위하여 대학은 여러 차례 在學生과 卒業生을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통한 의견을 청취하여 왔다. 1986년 9월 27일에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와 간담회에서 卒業生들은 소집단 토의식 강의 방법의 우수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이 방면의 先驅者的 役割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은 教育內容과 教育理念의 변화를 가져온다. 1970년대에는 前衛的이었던 교양 프로그램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생겨났고 또 최근 10년간 우리 사회가 겪은 많은 변화는 大學教育의 대폭적인 革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이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제검토가 1985년부터 德成女大 부설 教育研究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 동안의 연구는 外國 大學과 國內 大學의 교육 이념, 교과 과정의 변천 과정을 살피고 그 배경을 조사하는 일로부터 高等教育에 대하여 전공한 분을 초빙하여 오늘날 우리 대학의 교육 이념과 그를 구현시키는 理想的인 教科課程을 만드는 일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에 걸친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1978년부터 실시하여 온 德成女大 教養教科課程의 편성과 그 배경을 설명하고, 1985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추진중인 교양 교과 과정의 개편 방향을 하나의 事例로서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筆者의 전공이 教育學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德成女大 附設 教育研究所의 여러 教授님들과 李恩奉 教授, 양희인, 송영경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본고를 작성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叱正을 바란다.

## 2. 大學教育에서 教養教育의 位置

대체로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양 과목이라 하면 基礎科目, 道具科目, 國策科目으로 나눌 수 있고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마련된 校策科目이 있을 수 있다.

기초 과목이나 도구 과목이 專攻科目 이수외의 단계적 역할이나 보조적 역할로 개설된다면 국책 과목이나 교책 과목은 대체로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教養人의 養成을 위한 것이 大宗을 이룬다. 교양교육을 논의할 때 教養課程을 단순히 전공 분야의 豫備基礎課程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專門知識 이외에 現代人으로서의 교양이나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될 내용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후자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大學教育의 理念이나 目的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으며 전자를 주장하는 사람은 教養이나 人格이니 하는 것이 어떤 特定科目의 강의에서 형성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어떤 教育目標이 성취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며 대학에서 전수되는 教養知識이나 專門知識은 반드시 대학교육의 이념과 상응해야 한다. 德成女大에서 마련한 教養 프로그램은 대학교육의 이념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여기서 大學의 발생과 그 변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 속에서 교양교육의 목표를 추구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 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 즉 체제와 교육 과정 및 운영 방식에 있어서 西歐의 大學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근대화와 대학의 발전 과정을 검토해 보면 당연한 사실로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모델이 된 서구의 대학은 중세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도시내의 商人組合인 길드와 마찬가지로 교수와 학생의 순수한 眞理探求를 위한 共同體로서 시작된 서구의 대학은 초기에는 조합의 성격을 띤 自治機構였다.

19세기에 들어와 産業革命의 여파가 전 유럽으로 번져 나가자 대학은 擴大一路를 걷게 되었으며 각국에서는 독자적인 형태의 대학을 발전시켜 나가게 된 것이다. 그 중에서 대학이 엘리트적인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곳은 영국이었다. 英國式 대학은 1852년에 행한 뉴우먼 樞機卿의 강연 내용에 잘 요약되어 있다. 그는 대학이 사회의 知的 氛圍氣를 고양하고 공중을 教化시키며 국민들의 嗜好를 순화시켜 대중의 정열에 확고한 목적을 제공해 주고 당대의 이념을 啓蒙하며 私的인 生活을 세련화시켜 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당시 유럽에서 先進國 대열에 끼지 못하던 獨逸의 대학은 이와는 달리 다소 독특한 형태를 갖춘 대학을 발전시켰다. 즉 국가 발전의 原動力으로서 대학의 研究 기능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國家官僚制의 후원하에 科

學科 研究를 강조했던 베를린대학의 설립 이념에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베를린대학의 創立에 關여한 洪볼트, 피히테 등의 影響으로 베를린대학은 學問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知識을 啓發하고 學問을 창조하며 研究를 지속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內面化할 수 있는 學問研究가 대학의 이념으로 부상했던 것이다.

그 이후에 각국에서는 대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는데 이것은 時代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으며 그 중에서도 대학의 팽창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美國이었다. 미국의 경우 植民地時代에는 영국의 대학을 그대로 모방하여 信仰의 指導者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으로 출발하였으나 미국 사회를 지배하던 또 하나의 이념인 平等主義와의 대립을 경험하면서 독특한 미국식 대학을 형성하게 되었다. 즉 교육과 연구를 수용하면서도 보편적인 기회 확대를 추구하는 사회적 봉사 기능이 강조되었다. 미국 대학의 특색은 1963년에 클라크 커에 의하여 주장된 멀티버시티(multiversity)로 발전된다. 이것은 대학이 이미 일관된 單一共同體가 아니라 여러 개의 共同社會가 集合한 곳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대학은 그 사회내의 모든 知的 資源을 저장하는 곳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갖고 있는 모든 知性의 球心點으로서 대학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 대학의 성향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겠다. 그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것은 '70년대 이후 미국에서 하바드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난 새로운 敎育課程을 마련하려는 운동이다. 즉, 知性의 基本的 骨格은 대학에서 갖출 수 있도록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집을 지을 때 골격을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個性에 맞도록 방을 꾸미는 것이 순서이듯 지성의 골격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대학교육이 담당해야 할 核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를 위하여 文學과 藝術, 歷史, 社會와 哲學的 分析, 科學과 數學 그리고 外國語 및 外國文化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이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Core Curriculum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미국인을 하

나로 묶을 수 있는 統合的인 要因을 상실했다는 反省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19세기 이래 專門敎育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과목의 分化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바드대학이 엘리운 학장 이래 발전시켜 온 새로운 敎科課程이 전문 교육에 人間的 要素를 가미하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정신은 금후에도 계속해서 미국 대학의 교과 과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德成女大의 교양 과정은 이러한 大學敎育의 추세에 부응하고자 한 것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西洋의 대학 발전 및 敎育理念의 변천과 軌跡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 3. 德成女大 敎養敎育의 現況

德成女大의 敎養敎育은 15년 전부터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며 特性 있는 敎養科目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덕성여대는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학생수가 7~800명 정도의 소규모 대학이었다. 이 때의 교양교육은 法定必須로 부과되는 교양 과목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많은 교양 서적을 읽히고 讀後感을 써내는 한편 그것을 評價해 주고 讀書 討論을 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적어도 대학을 수료한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도서는 읽어야 한다는 基本 讀書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교양 과목으로 부과하는 제도였는데 그 결과 학생들은 專攻 이외의 책을 읽기에 매우 바쁜 생활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니까 현재 실시하고 있는 敎養敎育課程이 마련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1978년의 일이었다. 당시 이런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外國 大學의 제도를 참고했지만 큰 도움은 얻지 못했고 다만 讀者 프로그램에 있어서 St. Johns 대학의 것이 많이 참고가 되어서 그 곳에 교수를 파견하여 교육 내용을 검토하게 하기도 하였다. 1978년 교양교육 프로그램이 완결된 무렵 하바드의 로소보스키 학장에 의해 시도된 Core Curriculum에 관한 보고서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회고해 보면 당시 하바드 보고서는 최소한 敎養敎育의 外形的인 면에서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었던 것과 대단히 유사하였다. 量的인 면에서나 質的인 면에서

〈丑 1〉 德成女子大學의 敎養教育課程

학년	과 목 명	A		B		소 계
		1 학 기	2 학 기	1 학 기	2 학 기	
1	국 민 윤 리	2	2	2	2	4
	체 육	1	1	1	1	2
	외 국 어	3	3	3	3	6
	자 인 과 학	3			3	3
	예 술 의 세 계	2	3	3	2	5
	문 학 의 이 해		3	3		3
	소 계	11	12	12	11	23
2	국 사		2	2		2
	체 육	1	1	1	1	2
	외 국 어	3	3	3	3	6
	인 간 과 사 회	3			3	3
	소 계	7	6	6	7	13
3	인 간 과 사 상	2	2	2	2	4
	소 계	2	2	2	2	4
4	여 성 학	2		2		2
	소 계	2		2		2
	계	22	20	22	20	42

※ A는 자연·예술계열이며 B는 인문·사회계열이다.

※ 학점당 시간 수는 체육이 4학점당 8시간, 외국어가 12학점당 14시간, 인간과 사상이 4학점당 6시간, 예술의 세계가 5학점당 10시간이고, 나머지는 1학점당 1시간으로 되어 있다.

하바드대학과 한국의 한 여자대학을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기본적인 아이디어에서는 일치하는 점이 많았다. 이것은 東西를 넘어서 人間의 思考란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더불어 교양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던 여러 사람을 매우 고무시켰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이 두 敎養 프로그램이 외견상 類似했던 것이 무엇인가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德成女大의 교양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敎養課程의 총 이수 학점은 42 학점으로 졸업에 필요한 140 학점의 30%에 해당된다.<sup>2)</sup> 과목명과 학점수 및 이수 학점을 도표로 보면 〈표 1〉과 같다.

### 1) 敎養課程의 目的

1978년에 마련된 敎養 프로그램은 그 이전에 실시하던 敎養讀書 프로그램을 改編한 것으로 그 때에 논의되었던 目標은 다음과 같다.

첫째, 敎養敎育을 통하여 세계와 사회, 人間 및 事物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 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한국 사회에 앞으로 科學技術의 수요가 늘어나고 社會의 嚴格한 組織化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어 많은 專門學科들이 다양하게 증가되어 설치되는 추세에 있었다. 이와 동시에 최소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專門知識만으로도 世界나 社會, 人間에 대해 分析·批判·綜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하여, 교양 과목이란 전공 분야에 들어가기 위한 基礎課程의 하나로만 인

2) 敎育法 施行令 제119조에 의하면 '일반 교양 과목의 학점 배정 기준은 전체 과목 학점의 30%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42 학점은 140 학점의 30%에 해당된다.

식되었다. 1978년에 마련한 德成女大의 敎養 프로그램은 이러한 固定觀念을 불식하고 교양교육을 통하여 추구되어지는 教育目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교양 과목(藝術의 世界, 人間과 社會, 人間과 思想 등)을 새로 개발하였다. 당시 이 과목을 개발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國史學을 전공하기 위하여 개설된 國史概論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敎養科目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細分化된 기초 과정이나 여러 專門分野를 뛰어넘어 사물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敎養科目을 개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둘째로, 인접 및 관련 분야와의 연관을 강조하는 汎分野의 思惟를 유발시키는 것이 교양교육의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교양 과목을 설강하기 위하여 각 專門學科別로 신청을 받아보면 그것은 말이 교양 과목이지 실상 전공의 基礎科目이 대부분이었으며 전공의 全課程을 요약해 놓은 듯한 잡다한 知識의 나열인 경우가 허다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양 과목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汎分野別로 敎養科目을 개발하였으나 시행한 지 8년이 넘는 오늘날 돌이켜 보면 처음 목표가 얼마나 이상적으로 실천되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세째로, 논의된 목표는 倫理敎育의 強化를 들 수 있다. 일견 진부한 느낌이 드는 목표였으나 당시 敎養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은 몇 가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였다. 그것은 科學技術이 좀더 보편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점, 社會開發計劃의 精密化로 미래를 미리 예측하여 政策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는 점, 그런 과정에서 傳統的 倫理나 規範은 급속하게 변질될 것이라는 점 등이었다. 결국 앞으로는 각자가 倫理的으로 성숙된 인간이 되어 스스로 판단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새로 일어날 社會變化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道德의 意味를 언제 상실할지도 모르는 形式的 倫理 規範을 전수하기보다는 개인의 自律의 思惟에 의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과 같이 전통적 가치관이 급속하게 붕괴되

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倫理敎育이 특별히 필요 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네째, 교양교육을 통하여 東洋 및 韓國思想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한국이 國際社會에서 經濟的·社會的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한국적 特殊性이 어떻게 세계적인 普遍性和 만나느냐 하는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그래서 대학의 모든 분야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西洋의 價値觀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東洋的 價値觀을 음미하는 일을 다른 個別化된 專門課程에 맡기지 않고 敎養敎育에서 포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 2) 敎養課程의 組織 및 內容

위에서 장황하게 서술한 목표 밑에서 조직된 德成女大의 교양 과정은 크게 다음 네 분야 즉, ① 법정 과목, ② 기초 도구 과목, ③ 종합 교양 과목, ④ 전공 및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정 과목은 고도의 學力을 가진 重堅 혹은 指導的 위치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소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설강된 교과목들로서 教育法施行令이 규정한 國民倫理, 國史, 體育 등을 말한다. 基礎道具科目은 전공 과정의 이수나 학문적 성장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교과목들로서 각종 외국어가 여기에 속한다. 다만 自然科學도 기초 도구 과목에 편입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이 과목이 綜合敎養科目과 같은 강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다.

종합 교양 과목은 專攻學科와 관계 없이 적어도 대학교육을 받은 女性이 갖추어야 할 교양적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덕성여대가 女子大學이므로 졸업 후 대부분의 졸업생이 직장과 더불어 가정에서 자식에 대한 어머니로서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폭 넓은 敎養人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정된 것이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核科目이로서 이것을 기초로 하여 專攻과 選擇을 이수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 들어 있는 基本

精神은 기초 도구와 종합 교양 과목을 통하여 선택과 전공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段階的이고 累積的인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外形上으로 하바드대학의 교양교육과 유사하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하바드대학의 Core Curriculum은 기초 도구 과목으로 作文과 外國文化가 있고 綜合敎養에 해당되는 과목으로 哲學, 倫理學, 社會分析 등 여러 가지 核科目이 設想되었으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선택과 전공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 과목들을 量的인 면과 質的인 면에서 우리의 것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며 반드시 同一科目이 設想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韓國的 實情과 대학의 규모, 女子大學의 特性 등이 감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1) 법정 과목

● 국민윤리: 동·서양 윤리 이념을 시대적·사회적 배경으로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윤리 이념의 유형을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적 현실에 타당한 윤리 정립에 관한 창조적 의식이 함양되도록 한다.

● 국사: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및 서양에 있어서의 역사적 주요 계기를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다각도로 접근하여 한국의 오늘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게 한다.

● 체육: 체육에 관한 기본 지식과 체계적인 이론 및 실기의 병행을 통해서 체력, 운동,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며 체육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한편, 운동의 기능과 기술 습득, 신체 각 부분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해 1학년은 테니스를 중심으로 한 기타 다른 구기 종목과, 2학년은 골프를 포함한 여러 종목을 다룬다.

### (2) 기초 도구 과목

● 외국어: 영·불·독·일어 중 선택하여 2년 동안(1학년은 매주 4시간, 2학년은 3시간)에 걸쳐서 1학년은 회화, 2학년은 강독 위주로 진행한다.

● 자연과학개론: 자연과학의 현재 수준과 발전되어 온 과정, 미래의 발전 방향, 생활과의 관련 양상 등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의 정의 및 과학하는 태도와 방법, 19세기와 20세기의 과학

학, 태양계, 은하수와 우주, 시간과 공간, 光의 본질과 종류, 컴퓨터, 에너지, 공해 문제를 다룬다.

### (3) 종합 교양 과목

#### ① 예술의 세계

● 서양 음악 감상: 음의 결합과 진행 원리, 악기의 종류와 특징, 연주의 여러 방식과 차이점 및 중세시대, 르네상스와 바로크시대의 과도기 음악을 다루며, 이론과 감상을 병행하고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전문 교재를 사용한다.

● 서양 미술 감상: 미술 작품에 대한 분석, 감상 능력을 기르기 위해 미술사에 대한 전면적인 이론과 회화, 조각, 건축에 이르는 각 분야별 고찰과 사실주의, 표현주의 등의 미술사조, 화가의 기법과 역할, 현대 미술의 조류 등을 다루며 강의와 현장 학습을 병행한다.

● 무대 예술: 무대 예술의 본질과 특성 및 각 종류별 고찰과 희랍극, 엘리자벳 시대의 연극, 근대극과 시민 정신, 현대극 및 한국 민속극과 탈춤, 영화, T·V, 라디오 드라마 등을 다루며 강의와 현장 학습을 병행한다.

● 국악 감상: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차이점 및 한국 음악의 여러 형식에 대한 고찰, 현존하는 국악곡 중 정악(正樂, 청성곡 외)과 정가(正歌, 가곡, 시조), 민속악(산조, 판소리, 민요), 국악기의 종류 및 특징을 다루며 대표적인 악기의 경우에는 연주자를 초빙하여 실연으로 감상하고 대편성 합주곡은 교외교육(field work)을 통해 감상한다.

② 문학의 이해: 교재 「문학의 이해」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읽고 리포트를 작성하며 소집단 세미나도 실시하여 문학을 통한 기본 교양을 쌓는다.

③ 인간과 사회: 인간과 사회와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며 현대 한국 사회의 교육, 정치,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한국 사회 및 세계 사회를 直視할 수 있는 인문을 양성한다. 소집단 토의로 진행한다.

④ 인간과 사상: 동서고금의 철학을 시대별, 주제별로 연구하여 인류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고 이를 일상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현실을 분석, 평가, 창조할 수 있게 한다. 강의 진행은 1





과목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主題를 다각적인 면에서 고찰하는 방법이었으나 '主題는 작고 취급은 깊게'라는 원칙으로 교양 과목을 조직하고 特殊한 知識보다는 一般의인 知的 能力을 기르는 데 치중하도록 조직하는 방안이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그러나 이 案은 아직도 檢討의 단계에 있다.

#### 4) 教養教育의 問題點

德成女大의 教養課程은 포괄적인 知的 眼目的 양성, 풍부한 人間性의 계발, 高校教育의 補完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다. 教養學部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교양 과목이 專攻基礎科目으로 그 성격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며 概論 중심 과목에서 主題 중심 과목으로 편성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반복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고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북돋운다. 또 고등학교에서 당연히 이수되었어야 할 것들이 임시 위주의 파행적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수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심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교양 교과 과정을 운용하는 데는 적지 않은 問題點들이 노출되었다. 이 중 중요한 것만을 換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의 수가 적은 것이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급속한 학생수의 증가로 인하여 많은 교양 과목을 20명 이내의 소집단 토의 방식으로 전교생에게 지도하려면 상당히 많은 수의 교수가 필요한데 이것을 모두 전임 교수로 충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집단 토의식 강의 방법이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데 절대적으로 유용한 방법임은 앞서도 언급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종합 교양 과목들이 소집단 토의식 강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재정적 지출은 상당한 것으로 德成女大에서도 특별히 예산의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둘째, 교양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汎分野의 科目의 개발이 어렵다는 점이다. 덕성여대는 아직 소규모 대학으로서 다방면에 걸친 人材들이 충분히 모여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汎分野의 科目을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學習資料를 개발하며 또 실제로 그것을 강의하기 위하여 각 전공 교수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인적 구성으로 보아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학생의 질적 수준의 문제와 교육적 타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교양교육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自發的인 學習意欲과 그 成就度에 많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명 이내의 소집단 토의식 교육에서는 학생이 주가 되어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므로 학생 스스로가 충분히 연습하고 오지 않으면 바람직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았고 스스로 조사 연구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으므로 교수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토의식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학생들의 머리 속에 든 지식이 단편적이고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자기 생각을 몇 분 동안 지속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두뇌가 우수하고 충분히 준비된 그룹에서는 매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얻는 소득도 매우 큰 것을 보면 小集團 討議式 교육은 학교 안에서도 학생의 질적인 문제나 熱意와도 매우 큰 함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점은 소집단 토의식 교육이 갖고 있는 포괄적인 장점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굳이 그 장점들을 나열하고 싶지 않지만 高等學校 때부터 스스로 조사하고 발표하며 토론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된다.

넷째, 교양교육이 전공에 비하여 낮은 차원의 과목이라는 일반적인 대학 사회의 통념에 의하여 자칫하면 교양 과목을 경시하려는 경향이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教養教育을 아주 重要視하는 本大學에서도 가끔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받은 과제를 준비하지 못하여 그 이유를 추궁하면 전공 과목의 준비 때문이라고 답변하는 때가 있다. 이 때에 이 學生의 머리 속에는 專攻科目은 자기의 직업이나 社會進出과 직결되고 利害關係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반대로 교양 과목은 그만 못하다는 의식이 지배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대학에서 教養科目이란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인식되어 중진 교수들은 되도록 교양 과목

을 기피하고 신진 교수들이 이를 전담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本大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모든 대학에서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양 과목은 오히려 폭 넓은 지식과 교수 경험이 많은 중진 교수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 4. 바람직한 敎養敎育을 위한 努力

위에서 제시한 敎養敎育의 문제점과 그의 補完을 위하여 본 대학에서는 敎育課程小委員會를 조직하여 학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끊임없이 검토·수정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學內에 부설되어 있는 敎育研究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資料와 情報의 지원을 받고 있다.

敎育課程小委員會는 大學 長期綜合發展委員會의 한 분과로서 5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대학의 발전과 敎育課程의 개발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화시킬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 또 敎育研究所에서는 敎育課程小委員會를 위하여 다양한 情報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國內外的 最新 大學敎育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각종 교육 관계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보관하고 있다. 또한 외국 대학의 고등교육 연구소와 자료 교환을 통하여 최신 교육 연구 동향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學內 교수들끼리 세미나를 개최하여 高等教育 전반에 걸친 지식을 共有하도록 하며 이를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세미나 자료 중 일부는 국내 각 고등교육 기관에서도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번역·출판되기도 하며 그 밖의 자료는 학내 교수들에게 요약해서 공람되고 있다. 또 새로운 敎育課程의 개발을 위하여 교육과정소위원회와 교육연구소 합동으로 高等教育學界의 원로를 초빙하여 약 6개월에 걸쳐 정기적으로 기존의 교육 과정과 그 운영에 관한 진단이 있었으며 그 취약점과 補完方法에 관하여 좋은 諮問

을 구하였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현재에도 논의되고 있으며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새로운 敎育課程의 개발에 반영시킬 것이다.

이외에도 敎育研究所는 교육학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교내 교수들을 대상으로 特講을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새로운 敎育課程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제학생과 졸업생, 교·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敎育課程과 敎養科目의 개발을 위한 方向을 모색하고 있다.

#### 5. 結 論

이상 女子大學의 바람직한 敎養敎育課程의 편성을 위하여 그 동안 德成女大가 수행하여 온 改編作業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점을 하나의 事例로서 기술하였다.

1978년에 마련된 敎養 프로그램은 당시로서는 매우 革新的인 것으로, 여기서는 그와 같은 改編作業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그 작업에 참여한 研究者들이 생각하고 있던 大學敎育에서의 敎養敎育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또 歐美에서 변천되어 온 대학과 대학교육의 이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에 따른 敎育課程의 變遷, 특히 美國에서 새롭게 시작된 敎養課程을 비교·검토하였다.

本稿에서는 德成女大의 敎養課程은 어떻게 組織되었으며 그 內容은 어떠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교양 과정이 편성될 때 고려되었던 敎育目標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198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敎養敎育의 補完作業과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중요한 것만 개략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앞으로 여자대학으로서의 바람직한 敎養課程 편성과 施行上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에 부설된 敎育研究所와 小委員會를 활발하게 가동시키고 있는 現況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보다 더 바람직한 敎養敎育課程의 開發을 위하여 또 다른 改編作業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은 어느 날 끝낼 일이 아니라 대학이 숨쉬고 있는 한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